

文化大革命과 少數民族地區의 政治地圖 : 내몽고자치구와 어룬춘자치구의 사례*

李 康 源**

The Cultural Revolution and the Political Map of the Minority Nationality Region : A Case Study on the Inner Mongolia Autonomous District and the Oroqen Autonomous Banner

Kang-Won Lee**

요약 : 문화대혁명은 현대 중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치운동이다. 그간 문화대혁명에 대한 연구는 정치적 음모 내지는 노선투쟁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닌 정치지리학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이 글은 적어도 소수민족지구에서 진행된 문화대혁명에 대한 연구는 정치지리학적인 견지에서 보다 실체에 접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내몽고자치구와 어룬춘자치구에서의 문화대혁명의 전개과정을 살펴본 결과 중국 지도부에게 변강 혹은 민족자치지방은 '지역' 내지 '공간'으로서 중요한 것이지, '민족'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문화대혁명 기간 중 혁명지도부는 '민족'을 이용하여 '공간'을 조작하거나, '공간'을 이용하여 '민족'을 조작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민족자치구역에서 문화대혁명은 '민족'을 '개급'으로 해체하고, '자치구역'이라는 '공간'을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지방'으로 분해시키면서, '인민'과 '국토'로 통합시키는 과정의 일부였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문화대혁명, 민족, 자치구역, 내몽고자치구, 어룬춘자치구.

Abstract : The Cultural Revolution(*wenhua dagem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movement in the modern China. The studies on the movement done in recent years concentrated on the political conspiracy or the struggle over political line, so they did not pay attention to the political geographical dimension of the movement.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Cultural Revolution practised in the area of minority nationalities at least is well understood through the political geographical perspective. Through the discussion on the Cultural Revolution practised in the Inner Mongolia autonomous district and the Oroqen minority nationality autonomous banner, this paper suggest that the socialist Chinese leader group considers the frontier area(*bianjiang*) or the minority nationality regions(*xiaoshuminzudiqu*) important as 'region' or 'space' not as 'the area of minority nationalities (*minzu*)'. Especially, in the period of the movement, the leader group of the revolution manipulated the space by using the index of nationality or manipulated the nationality by using the index of space. Therefore this paper assert that the Cultural Revolution in the area of minority nationality autonomous region was a integration process of the people and national territory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ities into classes and of autonomous region into region in general meaning.

Key Words : Cultural Revolution, minority nationalities, autonomous region, Inner Mongolia, the Oroqen minority nationality autonomous banner.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문제제기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 : 이하 문혁(文革)으로 약칭함)의 공식적인 명칭은 '무산계급 문화대혁명(無產階級 文化大革命)'으로서, 1966년 5월부터 1976년

10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중국 전역을 휩쓴 정치적인 운동을 말한다.¹⁾ 10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이 정치적 운동에 소요되었다. 선전시(深圳市)에서 출판되는 잡지 「초점(焦點)」의 편집장 왕지엔이(王建一)는 “문혁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으며, 문혁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인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몸소

* 이 논문은 2000년 2월 한국지역지리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것임.

** 서울대학교 강사(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haekong1@dreamwiz.com)

겪어보지 않았다면, 근본적으로 문혁을 이해할 방법이 없다. 이것은 고난을 두루 다 겪은 우리 민족이 막대한 대가를 지불한 후에야 가지게 된 자산이다.”라고 말하였다(金春明, 席宣, 1995(2000), 8에서 재인용). 중국의 개혁개방이 문혁의 객관적 결과라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문혁은 현대 중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건이다.

문혁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정치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당과 중앙의 정치적 역학관계,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변화에 초점을 둔 연구들(Josep, Wong and Zweig, 1991; Lee, 1978; Dittmer, 1974)과 주장(珠江) 삼각주의 한 농촌에서 문혁 시기에 일어난 양상을 다룬 연구(Chan, Madson and Unger, 1984) 및 농업적 급진주의와 엘리트 정책 및 지방에서의 그 이행을 다룬 연구(Zweig, 1989), 도시의 지식 청년들의 하방운동에 관한 연구(Bernstein, 1977), 홍위병에 관한 연구(Chan, 1985)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문혁의 실체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를 통하여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문제점 또한 지니고 있다. 연구의 대부분이 “문혁 직전의 당과 국가의 위기- 소련과의 관계 악화- 후계투쟁”이라는 일련의 도식 속에서 문혁을 해석하고 있으며²⁾, 정치적인 음모를 얼마나 자세하게 파악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전 중국사 혹은 당대 중국사회에서 어떻게 자리 매김 할 것이냐의 문제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결국 문혁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전개된, ‘공간’과 ‘지역’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문혁의 전모에 대한 이해에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소수민족지구에서 진행된 문혁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진한 상황이다.

2) 연구의 목적과 과정

이 글에서는 문혁을 정치적인 ‘음모’에 중점을 두고 파악하기보다는 정치지리학적인 현상으로서 파악하고자 한다. 문혁에 대한 정치지리학적 파악은 문혁 중에서도 소수민족지구에서 전개된 문혁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1998년 8월부터 1999년 7월까지 1년간의 중국체류 기간 중 내몽고자치구(內蒙古自治區)와 내몽고자치구 내의 어룬춘자치기(鄂倫春自治

旗³⁾에서 현지조사를 하였으며, 2000년 8월 말부터 2001년 8월 초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다시 이 지역을 조사할 수 있었다. 주민들의 생애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혁의 여파는 소수민족지구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경험이었을 뿐이었다. 보다 포괄적인 시야를 얻기 위해 신중국 성립 이후 이들 지역의 변화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대약진운동과 문혁 시기의 통계와 문헌들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 두 운동이 소수민족지구에 대해 갖는 의미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문혁에 대해 공간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특히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의 소수민족지구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문혁과 그에 대한 공간적 파악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내몽고자치구와 내몽고자치구의 하위 행정구역의 하나인 어룬춘자치기에서 문혁이 전개된 양상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민족자치구역의 정치적 지위와 공간적 편제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것들이 지니는 정치지리학적인 의미를 도출하기로 한다.⁴⁾

2. 내몽고자치구 문화대혁명의 정치지리학적 측면

1) 내몽고에서 문화대혁명의 전개과정

내몽고에서는 1966년 내몽고일보(內蒙古日報)가 “전국의 각족 인민들은 떨쳐일어나 사회주의 문화대혁명에 적극 참가하라”는 사설을 발표함으로써 문혁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러한 시작은 곧바로 문혁의 기본 구호인 ‘조반유리(造反有理)’에 따른 내몽고자치구 지도부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내몽고자치구 건립의 주도자였던 우란푸(烏蘭夫)와 그의 동료들은 ‘반사회주의’, ‘반모택동사상’, ‘조국통일의 파괴자’, ‘민족분열주의자’, ‘내몽고 최대의 자본주의의 길을 가는 당권파’라는 비판을 계속적으로 받게 된다.

1967년 1월 조반파(造反派)들이 내몽고일보사를 장악하고 상하이(上海)의 ‘일월풍폭(一月風暴)’에 호응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2월에는 내몽고의 수부인 후허하오터시(呼和浩特市)에서 홍위병 제3사령

부가 중심이 된 조반파들이 내몽고 군구를 타격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초기의 지도부에 대한 공격은 내전 상황으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내몽고자치구 내부적인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사태였다. 3월 저우언라이(周恩來) 등의 중앙 지도자들이 내몽고의 당 위원회, 군구, 홍위병 제3사령부, 직공 호위군 총부 등 4 파벌의 대표들을 베이징으로 불러 문제의 해결을 종용하였지만, 사태는 안정되지 않았다.

그 과격성 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급속한 전개를 보인 문혁의 내몽고자치구에서의 국면은 세가지였다. '알숙운동(挖肅運動)⁶⁵⁾, '신내몽고인민혁명당' '원안(新內人黨'冤案)⁶⁶⁾, '청리계급대오(清理階級隊伍)⁶⁷⁾가 그것이다(郝維民, 1991, 294). 앞의 두가지는 주로 지식인에 관련되어 있는 반면, 청리계급대오운동은 내몽고 내의 몽고족 일반 인민 전체와 관련된 사안이었다.

먼저, 1968년에 강성(康生)을 중심으로 알숙운동이 전개된다. 이는 내몽고자치구에 내몽고자치구의 독립을 주장하고,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내몽고인민혁명당'이 존재하며, 이를 파헤쳐 숙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운동이었다. 자치구를 건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우란푸 등의 지도자들은 "검은 네트워크(黑線: 마피아)"로 지목되어 공격당하게 되었다.

동시에 '청리계급대오(清理階級隊伍)' 운동이 문혁의 '좌'적 분위기에서 다시 '좌'적 분위기를 부추겼다. 중국의 일반적인 농촌과 달리 내몽고는 '목민(牧民)'으로 구성된 사회였다. 따라서 농촌 일반에 대한 사회주의 전략을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었다. 1965년 마오쩌둥이 「농촌사회주의 교육운동」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자, 이에 1965년 11월 내몽고 당위원회는 '내몽고 목구 사회주의 교육운동의 약간문제'와 '목구 사회주의 교육운동 중의 몇 가지 정책문제'를 발표하면서, 1965년 마오쩌둥에 의해 제기된 '농촌사회주의 교육운동'에 대하여 약간의 차별적인 주장을 한다. 농촌 사회주의의 원칙을 내몽고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66년 문혁이 시작되자 내몽고 당위원회의 이러한 주장은 무시되었다. 오히려, 1968년 7월에 발표된 「목구의 계급획분과 계급성분 청산정리에 대한 몇 가지 규정 사항(초안)」은 중국 공

산당이 이전에 목구에서 취하던 "투쟁하지 않고, 나누지 않으며, 계급을 획분하지 않는다"는 정책(三不政策)과 "목업 노동자와 목장주 모두 이롭게 한다"는 정책(牧工牧主兩利政策)과는 다른, "목장주에 대해 투쟁하고, 가축을 나누는"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목민을 2계급 6계층으로 나누고, 이와 동시에 린샤오(林彪)의 '정치변방(政治邊防)' 건설 제안으로 변경지방의 목민들이 내부로 이동하게 된다. 이것은 내몽고 목구 전반에 혼란을 가져왔다.

1968년 12월 내몽고일보는 사실을 통하여, 우란푸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圖們, 祝東力, 1995).

목구에 인접한 농촌은 일종의 '방호지대(防護地帶)'를 구축하여, 16개 기·현(旗·縣)과 약 80만 인구의 지역에 토지개혁이 없었다. 서부의 여러 지역에서 평화로운 토지개혁을 조장하였고, 약 1백만이 거주하는 몽·한 잡거지구에서는 "몽고족 지주와 부농을 한 계급 내리라"는 데 대하여 반동적인 정책을 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주들이 타도대상에서 벗어났거나, 그들을 감싸주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몽·한 잡거지역(蒙漢雜居地域)인 반농반목지대에서 몽고족 지주와 부농들에 대한 철저한 탄압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것은 1969년 7월 내몽고자치구의 행정구역이 분할되어 일부지역이 인근의 성들에 이관되자, 더욱 극렬한 양상을 띠었다. 인근의 성들은 민족자치 단위가 아니라 한족들의 행정단위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몽고족들이 무력으로 저항을 하게 되었다. 목민들은 말을 타고 각지의 혁명위원회에 난입하여 자신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과 계급획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저항하였다((자세한 것은 圖們, 祝東力(1995)를 참조). 1969년 12월 내몽고의 분구와 전면적인 군 관할 체계가 실시되고, 베이징 군구가 '내몽고 전선지휘소'를 성립시키면서 상황은 어느 정도 장악되었지만, 1970년대 초반까지 상황의 개선은 기대할 수 없었다.

1971년 10월 내몽고 당위원회가 17개조의 「농촌·목구의 약간 정책문제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면서, 문혁으로 촉발된 좌경화의 오류를 수정하고자 하였다. 그와 동시에 「목구에서 계급을 다시 조

사할 것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고 타도대상인 목주(牧主)와 부목(富牧)이 100분의 8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상황은 중앙의 정치투쟁의 양상에 따라 다시 반전과 재반전을 거듭하였다.

1972년 2월 내몽고에 대한 군관할 체제가 종결되고 난 후, 8월 민족 상층 인사와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는 당지의 해방 전 3년 동안의 계급성분으로 계급을 정하되, 다시 민족에 따라 별도로 나누지 않으며, 종교활동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는 종교 직업자로 획분한다는 규정을 반포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 결정에 이르는 동안 내몽고에서는 이미 많은 지도자들과 목주, 목민들이 희생된 상태였고, 목장들이 황폐화된 상태였다.⁸⁾

2) 문화대혁명 시기 내몽고자치구의 분할

문혁과 더불어, 1968년 내몽고인민혁명당에 대한 알숙운동이 전개되면서 내몽고에서 ‘민족분열주의 자들’에 대한 공격은 ‘공간적인 양상’을 띄게 된다.

문혁이 절정을 구가하던 1969년 7월 내몽고자치구는 인접한 성급 행정구역으로 그 관할 구역을 양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표 1 참조〉).

원 나라 멸망 이후 몽고는 사실상 내적인 통합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동몽고와 서몽고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고, 다시 내몽고와 외몽고로 분리되면서, ‘몽고’는 해체의 위험에 노출되었다. 더구나 근대적인 교통의 중요성이 증대된 이후에도 동서로 길게 뻗은 내몽고자치구 내에는 내적인 완결성을 갖는 교통망이 확보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몽고의 토지와 삼림 및 초지에 대한 개발은 내몽고자치구 자력으로 수행되기 어려웠고, 대신 전국적인 인구증가에 의한 식량증산의 필요성에 직면한 중앙 정부가 내몽고의 경작 가능한 초지를 개간하는 일을 추진하게 된다. 문혁은 그 과격성으로 인하여 내몽고의 목축민들의 불만을 폭력적 분위기 속에서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내몽고의 인접 지역의 성급 단위들은 내몽고의 토지를 ‘접수’하고 대대적인 이주와 하방 및 하향운동(下

〈표 1〉 문화대혁명 시기 내몽고자치구 관할 구역의 변화

개편전의 행정구역	문혁시기 개편된 행정구역	개편된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현재의 행정구역
내몽고자치구 후룬베이얼맹	헤이룽장성 후룬베이얼맹	내몽고자치구 후룬베이얼맹
내몽고자치구 후룬베이얼맹 어룬춘자치기, 모린다와 다우얼족 자치기	헤이룽장성 파싱안링지구 어룬춘자치기, 모린다와 다우얼족자치기	내몽고자치구 후룬베이얼맹 어룬춘자치기, 모린다와 다우얼족 자치기
내몽고자치구 저리무맹 투첸현, 커얼친여우이치엔기	지린성 바이청지구 투첸현, 커얼친여우이치엔기	내몽고자치구 싱안맹 투첸현, 커얼친여우이치엔기
내몽고자치구 저리무맹	지린성 저리무맹	내몽고자치구 저리무맹 (통랴오시)
내몽고자치구 자오우다맹	랴오닝성 자오우다맹	내몽고자치구 츠핑시
내몽고자치구 파안나오얼맹 아라산주오기	닝샤후이족자치구 아라산주오기	내몽고자치구 아라산맹 아라산주오기
내몽고자치구 파안나오얼맹 아라산여우기, 어지나기	간수성 아라산여우기, 어지나기	내몽고자치구 아라산맹 아라산여우기, 어지나기

자료출처 : 中華人民共和國民政部編(1980, 14-15), 郝維民 主編(1991, 370-372).

放·下鄉運動)을 통해 자신들의 것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대규모 인구의 이주와 토지의 개간은 초지의 감소로 이어졌고, 개간된 농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은 인근 초지의 양들을 병들게 만들었다.⁹⁾ 나아가 몽고 민족의 특수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출발한 초기의 '계급투쟁'이 극좌의 분위기에서 과격화된 것은 '지주·목주 반동분자'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몽고족 및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다. 이입된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족과 원거주민인 몽고족들 사이의 관습상의 차이에 의한 마찰 역시 이러한 경향을 부채질하였다.

문혁 시기 내몽고자치구의 분할은 몽고인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극좌의 분위기가 민족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자치구 영토의 분할은 중국 내에서 '몽고족의 소멸로 이해되었고, 문혁은 '민족탄압대혁명'으로 받아들여졌다.¹⁰⁾ 그러나 내몽고자치구의 영역을 '점수'한 인근의 성급 단위들에게도 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내몽고자치구 영역의 형성과정과 인근 성급 단

위들의 연고권에 관련된 것이었다.

원래 1935년 12월 20일에 발표된 마오쩌둥 명의의 「중화소비에트 중앙정부의 대내몽고인민 선언(中華蘇維埃中央政府對內蒙古人民宣言)」의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었다.

원래의 6맹, 2부, 49기 및 차하얼투튀터(察哈爾土默特) 2부(部) 그리고 닝샤(寧夏)의 3특기(特旗) 전역을 모두 내몽고 인민에 귀속시켜, 몽고 인민의 영토로 한다. 러허성(熱河省), 수이위엔성(綏遠省), 차하얼성(察哈爾省) 등을 모두 폐지하고, 모두 몽고 민족의 토지로 한다.(中共中央統戰部, 1991, 322)

그러나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 내몽고 영역의 즉각적인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47년 내몽고 '자치구' 성립 당시 내몽고자치구의 관할 영역은 후룬베이얼맹(呼倫貝爾盟), 나원모런맹(納文慕仁盟), 상안맹(興安盟), 시린귀러맹(錫林郭勒盟), 차하얼성(察哈爾省)으로 54만km²에 지나지 않았고, 저리무맹(哲里木盟)은 만주국의 랴오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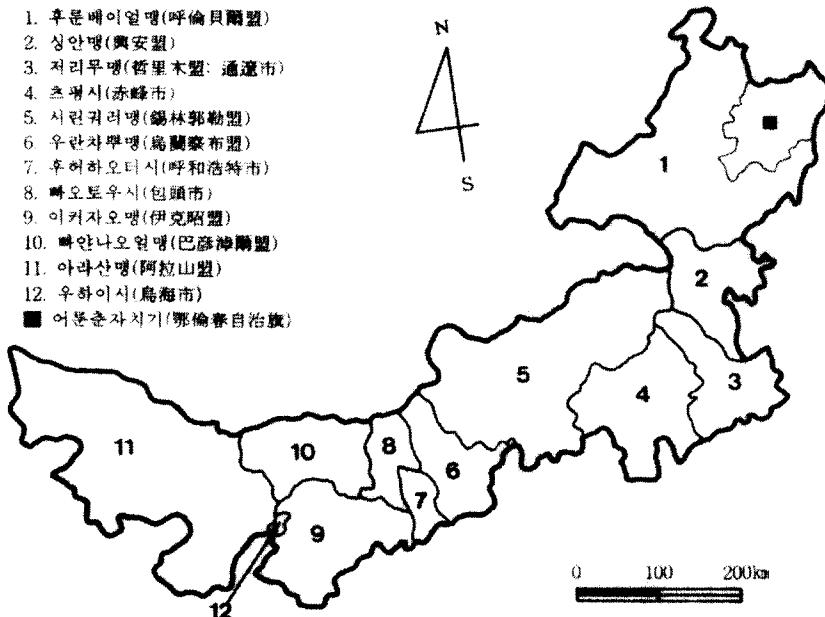


그림 1. 현재 내몽고자치구의 행정구역과 어룬춘자치기의 위치

성(遼北省)에, 자오우다맹(昭烏達盟)은 러허성에 포함되어 있었다. 1949년 신중국이 성립되자 이 지역들은 내몽고자치구로 편입되었다. 다시 1952년 차하얼성이 해체되어 내몽고자치구에 편입되었고, 수이위엔성이 해체되어 역시 내몽고자치구에 편입되었다. 1956년에는 러허성이 해체되어 츠핑 등 6개의 기가 자오우다맹으로 편입되었다. 동시에 서부의 간수성(甘肅省)이 관할하던 파안하오터 몽고자치주(巴彥浩特蒙古自治州)와 어지나기(額濟納旗)가 내몽고자치구로 편입되어 파안나오얼맹(巴彥淖爾盟)을 성립하였다(當代中國編輯部, 1992, 43-44). 이로써 118.3만km²의 내몽고자치구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그러나 문혁 시기에 인근 성급 단위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연고권을 가진 지역을 대부분 다시 자신들의 영역으로 편입시켰다. “원래 우리 땅”이라는 논리에서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다시 급진적으로 변하여, “원래 우리 땅”이 아닌 지역마저도 편입시키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행정구역

변경에는 이상의 논리 이외에도 군사 전략적인 의미가 있었다. 내몽고 군구(內蒙古軍區)는 1969년 문혁의 와중에서 부군구(副軍區) 내지 성급 군구로 강등되었다가, 1969년 3월 중·소 국경분쟁이 발생하자 동경 118°를 중심으로 동부는 선양 군구(沈陽軍區), 서부는 베이징 군구(北京軍區)의 관할을 받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새로이 편성된 내몽고자치구의 경계는 이전과 달리 소련과 국경을 접하지 않게 되었으며, 소련의 위성국가였던 몽고 공화국 과만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중앙이 내몽고 군구를 무력화시킨 것은 계속되어 온 몽고독립 내지 통합운동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고 볼 수 있다. 문혁이 시작되었을 때, 후허오터의 내몽고 군구 사령부가 조반파들에 의해 습격당한 것은 내몽고 군구 내부에 민족주의적인 분위기가 없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내몽고의 행정구역을 조정하면서 소련과의 국경을 접하지 않도록 한 것은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몽고의 몽고족들이 소련에 의해 이용당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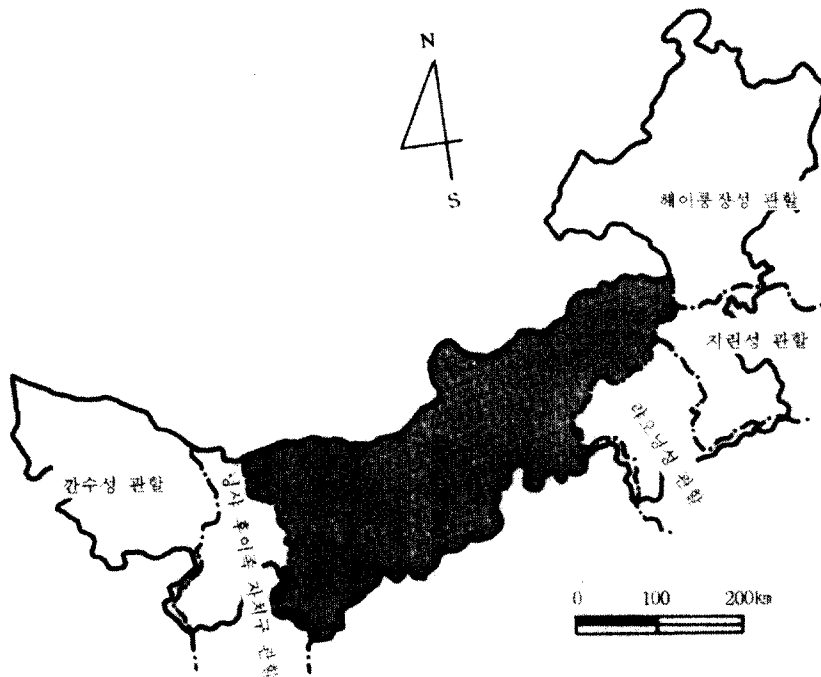


그림 2. 문화대혁명 시기 내몽고자치구의 분할 상황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의 이론대로 중국 민족정책의 우월성이 민족구역자치제도(民族區域自治制度)의 실행에 있고, 이것이 문혁 이전에 소수민족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고 할 때¹¹⁾, 문혁 이후 '자치구'에서 '성'으로 편입되는 것, '몽고족자치구'에서 '후이족자치구'로 편입되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 자신의 민족적 이익을 관철시키는 데 있어 장애가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더 이상 '주체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활양식에 대한 주장이나 경제적 이익의 확보에 있어서 우선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따라서 편입된 지역의 몽고인들이나 토착 소수민족들은 위기 의식을 가졌고, 몽고족들은 영역의 축소로 인하여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불안감마저 지니게 되었다.

1979년 7월 내몽고자치구는 원래의 행정구역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내몽고자치구 내에는 1969년부터 1979년까지 인근의 성급 단위들에 의해 개간된 농장들이 존재하고, 이 농장의 토지는 내몽고자치구에 속하지만, 운영권과 산품에 대한 권한은 그 농장을 개발한 인근의 성급 단위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아직도 문혁의 여파는 공간적으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어룬춘자치기의 경우를 통하여 더욱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다.

3. 어룬춘자치기 문화대혁명의 정치지리학적 측면

1) 어룬춘자치기에서 문화대혁명의 전개과정

어룬춘자치기에서조차 문혁은 어룬춘인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다.¹²⁾ 어룬춘인들은 자신들의 “원시공동체 말기에서 사회주의 단계로의 비약적 발전”을 선전하는 보도들을 “호뭇하게” 바라보기도 하였지만, 자신들이 ‘문화(文化)와는 거리가 먼 ‘야만(野蠻)’의 대명사로 지칭되고 있다는 점 또한 알고 있었다. 때문에 한어(漢語)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고 있던 일부 어룬춘인들은 문혁을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자는 혁명”¹³⁾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들의 주변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1966년 8월 어룬춘자치기에서도 공식적인 문혁이 시작

된 것이다. 그러나 초기의 문혁은 파싱안링 산지에 분포하는 입업국 소속 노동자들의 투쟁에 머물렀을 뿐 어룬춘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1966년 말에 이르러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하였다. 1967년 2월 인민해방군 4950부대가 ‘좌익을 지원하는(支左)’ 부대로 어룬춘자치기의 소재지 아리허(阿里河)에 진주한다. 이들은 이 곳에 진주하여 ‘동광홍(東方紅)’이라는 ‘혁명조반군중조직(革命造反群衆組織)’을 어룬춘자치기의 문혁 주도 조직으로 삼고 혁명공작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머지 않아 이들 내부에 이견이 노출되어 ‘징강산(井岡山)’이라는 군중조직이 별도로 성립되어 서로 충돌하게 된다. 이는 문혁 초기 중앙에서 일어난 ‘홍위병(紅衛兵)’과 ‘적위대(赤衛隊)’ 사이의 충돌과 유사한 것이었다.

1967년 연말 인민위원회(人民委員會)는 ‘혁명위원회(革命委員會)’ 조직으로 바뀌고, 전 조직이 군사조직의 편제를 따르게 된다. 이는 계엄상황과 유사하였으며, 이전의 자치기 인민위원회 조직을 정치부, 생산지휘부, 인민보위부라는 세 가지 조직으로 편제하고, 그 업무를 군사조직으로 일원화하는, 이른바 ‘삼부일판(三部一辦)’의 조직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민족적 이익의 문제를 주로 토론하고 정책을 건의하던 ‘어룬춘자치기 정치협상회의’가 해산되었다.

1968년 1월 4일에서 2월 25일까지, 입업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외지에서 유입된 입업직공들이 주로 거주하던 커이허(克一河)에서 무장투쟁이 일어나 그 자리에서 17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상 후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이는 이들 입업국들이 국가입업국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중앙에서의 문혁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그에 따라 중앙의 ‘홍위병’이라는 군중조직과 ‘적위대’라는 군중조직의 확대화가 이 지역에까지 확산되어 일어난 군중조직간의 충돌이었다.

어룬춘자치기에서 문혁의 초기적 양상은 정당과 정권조직의 재편 및 군중운동을 특징으로 하였다. 따라서 어룬춘인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만 상층의 민족지도자들에 대한 공격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전내 몽고적 차원에서 일어난 알숙운동, 신내인당원안,

청리계급대오 운동이 어른춘자치기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었다.

‘알숙’운동의 어른춘자치기적 양상은 1968년 4월의 이른바 ‘6호안건(六號案件)’이다. 이것은 어른춘자치기 공안기관과 군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인사가 극좌적인 성향을 지닌 상급기관의 지지를 기반으로, 소위 “나라를 비판하고 수정주의에 투항(判國投修)”하는 사람들에 대해 공격을 가함으로써 일어난 일이다. 왜 ‘6호안건’이라고 명명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당시 아리허의 철도 수송 노동자 한 사람이 농구를 매우 잘하였는데, 그의 등 번호가 6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고 한다. 이러한 정치적 공격으로 인해 어른춘자치기의 공산당 위원, 정부의 주요 지도자, 소수민족간부와 군중 900여 명이 “나라를 비판하고 수정주의에 투항하는 자들”로 분류되어 고초를 겪게 된다.

어른춘자치기 농촌지역에서 ‘청리계급대오운동’은 심각하지 않았다. 이 지역의 농지는 신중국 성립 이후 집단적 개간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주’나 ‘부농’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임업지구의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랐다. 이들은 군중조직의 형식으로 대항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정기업일체제(政企合一體制)¹⁴⁾라는 조직형식상, 중앙의 동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어른춘자치기에서 이 운동의 최대의 피해자는 어른춘인들이었다. 어른춘자치기 혁명위원회는 임업노동자와 군인으로 구성된 ‘노동자 마오쩌둥 사상 선전대(工人毛澤東思想宣傳隊)’와 ‘해방군 마오쩌둥사상 선전대(解放軍毛澤東思想宣傳隊)’를 구성하여 하부의 기층단위에 진주시켰다. 이는 문혁의 과격성으로 인해 기층단위에서 동요가 일어나자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책이었다.

어른춘인들은 원래 ‘원시공동체 말기’의 사회발전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생산수단의 소유여부나 생산수단 소유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 ‘계급’이라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청리계급대오운동은 어른춘족 내부에서도 ‘계급’을 만들어 냈다. 타도대상이 된 사람들은 전통적인 ‘우리령(烏力楞)¹⁵⁾의 지도자들이었다. 이들이 ‘우리령’의 구성원들을 “착취하는 지위에 있었고 비교적 많은 소득을 차지하였다”는 것이었다. 그에 더하여 만주국 시기에 삼림대에 관

여한 경력이 있거나, 일본제 소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매국분자”로 지칭되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나이가 많고, 수렵경험이 풍부하며, 구성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공격은 어른춘인들을 격분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어른춘인들은 문혁을 자신들의 전통을 완전히 와해시키는 운동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한편, 엽민대의 일부 어른춘인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감조차 잡을 수 없었다. 그들은 인민해방군이 진주하여 마을 공터의 자작나무에 스크린을 걸어두고 방영하는 선전영화를 그저 “신기하게”만 바라보고 있었다.¹⁶⁾

그러나 이들에게도 혁명은 비커가지 않았다. 외지에서 들어온 지식청년들과 더불어 비교적 도시적인 성격이 짙던 아리허와 따양수(大楊樹)에 거주하는 어른춘족 지식청년들이 사상개조를 위해 자치기 경내의 벽촌으로 떠나게 되었다. 더불어 이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던 민족지도자들이 탄압을 받았고, 그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다. 어른춘인들이 적은 인구수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친척”이었다.

어른춘자치기에 거주하는 어른춘족 지식인들은 문혁 시기에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하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모두에게 일종의 ‘치욕’으로 남아 있었다. 또한 당시에 고통을 받은 어른춘인들은 대부분 병으로 사망하여 현재 그에 대해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초대 자치기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위지예(沃杰, 1967년 4월 사망), 바이상밍(白向明, 1968년 6월 사망), 허치얼투(賀其爾圖, 어원커족, 1969년 4월 사망), 퉁구메이(佟古梅, 1970년 사망), 만춘(滿春, 1973년 사망), 꾸이더뿌(貴德布, 1974년 사망), 우러지(烏勒吉, 1975년 사망) 등이 문혁의 와중에서 폭력(觸及)으로 인해 사망하였다.¹⁷⁾ 이들의 죄목은 “민족분열주의자(民族分裂主義者)”, “주자파(走資派)”, “역사반혁명(歷史反革命)”, “일본 간첩(日本特務)”, “비적두목(土匪頭子)” 등이었다.

2) 지역관합체제의 변화와 자치공간에 대한 위기의식

1969년 초 문혁은 절정을 이루다가 4월로 공식적으로 종결된다. 그러나 아직 중국은 정치적인 소

용들이 속에 있었다. 이것은 어른춘자치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 절정기에 어른춘자치기와 그것이 소속된 후룬베이얼맹은 헤이룽장성으로 편입되어 1979년까지 관할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1969년 9월 헤이룽장성 파싱안링지구 혁명위원회가 어른춘자치기의 기존 문혁 조직들을 와해시키고, '마오쩌둥 사상 선전대'를 새로 조직하여 어른춘자치기 경내로 진입하였다. 당시 이 선전대는 파싱안링개발을 위해 파견되어 있던 군대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이들의 진입으로 상황은 진정되어 갔지만, 동시에 몽고인들이나 어른춘족, 어원커족, 다우얼족 등과 같은 내몽고 내의 소수민족들에게는 자신들의 자치구역에서 자치권력의 와해를 목격하게 되었다.

1970년에 들어서면서 문혁의 불길은 조금씩 수그러들게 된다. 그러나 문혁의 '정신'은 사회전반에 걸쳐 관찰되고 있었다. 1970년 1월 어른춘자치기의 공산당조직이 재건되지만, 그것은 '문혁의 정신'에 입각한 것이었다. 따라서 1966년 이전의 상태로 복구되지는 않았다. 당 재건의 결과는 어른춘족이나 어원커족 등 민족간부의 배제였다. 당 위원회의 상부조직이 회복되는 것은 1973년에 이르러서였다. 나아가 이 지역을 접수하게 된 헤이룽장성은 파싱안링지구 혁명위원회의 이름으로 "따양수 건설 지휘부(大楊樹建設指揮部)"를 구성하여 어른춘자치기 남부에서 대규모 토지개간에 착수하였다. 이 조직은 세 개의 대규모 국영농장과 양종장 및 이전에 후룬베이얼맹 관할의 6개 농장, 탄광, 밀가루 공장, 자재창 및 어른춘자치기의 일부 행정단위를 접수하게 된다. 이제 어른춘족의 자치구역으로서 '어른춘자치기'는 영역적으로도 실질적인 지배권을 상실

하기에 이르렀다.

더불어, 1974년 봄부터 어른춘자치기의 어른춘족에게는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또 하나의 운동이 전개된다. "농업은 따자이를 배우자(農業學習大寨)"는 운동이 그것이다. 이 시기부터 어른춘족은 강압적으로 농업으로 전환을 요구받았다. 1975년 12월 어른춘자치기 성립 이후 최초로 자치기내에서 식량을 자급한 것으로 보고되었지만(鄂倫春自治旗史志編纂委員會, 1991), 이를 위해 어른춘인들은 1974년 봄부터 1975년 가을까지 불과 2년 동안에 수렵민에서 농민으로 급격한 전환을 이루어야 했다.

이러한 급격한 전환의 외부에는 대량의 외지인구의 유입 또한 존재하였다. 1974년 1년 동안 어른춘자치기로 유입된 "맹목적 유입인구(盲目流入: 盲流)"가 29,594명으로 집계되었다(鄂倫春自治旗史志編纂委員會, 1991, 822). 이러한 인구유입이 어른춘인들에게 가져다준 치명적인 결과는 "결핵"이었다. 원래 어른춘인들은 육식을 즐겨하기 때문에 술을 상대적으로 많이 마시고, 따라서 심장병과 같은 질환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핵과 같은 질병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았었다. 산지의 맑은 공기에서 지냈던 이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면역 능력도 없는 결핵이 유입자들과 더불어 들어와 어른춘족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다. 1980년 조사에 의하면 1,094명의 어른춘족이 결핵이나 결핵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질병에 걸려 있었다.¹⁸⁾

1976년 10월 22일 어른춘자치기의 소재지인 아리허에서 '사인방(四人幫)'을 분쇄한 것에 대한 경축행사를 열었을 때, 어른춘자치기의 인민들, 특히 '주체민족'으로서 어른춘인들에게 남은 것은 일종의 정신적인 공황과도 같은 것이었다. 문혁으로 육체

〈표 2〉 어른춘자치기의 관할 체제(1958~1984)

중국 공산당과 정부			
내몽고자치구/헤이룽장성	중앙정부 임업부/농업부 직속		
후룬베이얼맹/파싱안링지구	임업국	농장국	
어른춘자치기		농장	
인민공사	임장	인민공사	
생산대대	별채소공대/영립대	생산대대	
엽업생산대	농업생산대	임업소대	생산대

자료출처 : 필자 작성. 엽업생산대(獵業生產隊)는 수렵을 위해 조직된 생산대임.

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1979년에는 내몽고자치구 당 위원회가 1968년 쿠이허에서 일어났던 유허참사에서 박해당한 사람들에게 대해 ‘평반(平反)’¹⁹⁾을 단행하였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는 없었다. 거기다 어룬춘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을 너무 많이 잃었다.²⁰⁾

또한, ‘민족’을 운운하는 것을 ‘우파’나 ‘민족분열주의자’라고 공격하는 상황에서는 민족 고유의 생활양식이나 관습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마오쩌둥사상 선전대와 홍위병들이 어룬춘인들의 집거지역에 들어와 어룬춘인들이 새로 지은 집 뜰 안에 전통 가옥 ‘선런주(仙人柱)’²¹⁾를 지어놓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고 ‘야만인들’이라며, ‘선런주’를 파괴할 때,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던 어룬춘인들은 많지 않았다. 문혁 시기 탄압을 받은 어룬춘족 ‘지식인들’은 한족 ‘지식인’에 비해 몇 가지 조롱과 욕설을 더 들어야 했는데, 그것은 곧 문화에 대비되는 ‘야만’이었다.

그러나 일부 어룬춘인들은 ‘태연자약(泰然自若(?))’했다. 그들은 “나건들”²²⁾의 길거리 곳을 처음에는 신기하게 바라보다가, 그것이 사람을 죽이고 어룬춘인들을 핍박하는 상황으로 변질되자, 말을 끌고 산으로 들어가 나오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겁이 난 나머지 ‘민족’까지 속이게 된다.

어룬춘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였던 ‘자치기’의 관할 부분과 영역은 현격히 감소하였고, 문혁의 와중에서는 ‘자치기’조차 그 직무가 사실상 정지되어 있었다. 1969년 8월 어룬춘자치기는 내몽고자치구 후룬베이얼맹(內蒙古自治區 呼倫貝爾盟)의 관할에서 헤이룽장성 따싱안링지구(黑龍江省 大興安嶺地區)의 관할로 넘어가게 되어 헤이룽장성 따싱안링지구 어룬춘자치기(黑龍江省 大興安嶺地區 鄂倫春自治旗)로 편제된다. 1966년 이미 자거다치진이 헤이룽장성의 관할로 넘어가 있었고,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남부의 농장 지대 역시 헤이룽장성의 관할을 받아 농장국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예견된 것이었지만, 중앙에서 비준이 이루어진 ‘문건’이 목전에 도달하자, 이제 실질은 형식까지 구비하게 되었다.

결국, “10년 재난” 기간 동안 어룬춘자치기에서 어룬춘족은 ‘자치’를 이룰 수 없었다. 사냥터는 별

채와 개간으로 훼손되었다. 자신들의 생활양식에 대한 주장은 ‘우파’의 견해로 비판받았다. 이들에게도 위기의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자치기의 영역은 ‘정기합일체제’의 임업국과 농장국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내몽고 ‘자치구’가 아닌 헤이룽장성에 귀속되는 것은 ‘민족’으로서의 보호막을 상실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3) 당·정 지도부의 민족적 구성 변화와 자치권력의 위기

존재에 대한 확인은 공간적인 사항이기도 하지만, 권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문혁 시기 어룬춘인들이 자신들의 ‘자치구역’에서 과연 ‘주체민족’으로 활동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당과 정부의 지도부 구성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1951-1959년의 어룬춘자치기 공산당의 조직의 서기와 부서기직은 대부분이 소수민족, 특히 어원커족이 많았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였다. 이것은 어룬춘족과 어원커족이 민족식별(民族識別) 문제에 있어서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민족-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체제는 문혁 전까지 유지되었다. 문혁 직전까지 당 조직에 어룬춘인은 1명이 있었지만, 여전히 어원커족, 다우얼족 등 소수민족이 서기와 부서기직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1966년 10월에 이르면, 부서기직에 한족이 다수 등장한다(<표 3>). 1967년 12월 자치기혁명위원회가 성립하여 기존의 당 위원회의 직권을 대신하게 되고, 1968년 10월에는 혁명위원회 핵심소조가 구성되고 이들에 의한 ‘일원화’ 지도가 이루어진다. 이 때부터 한족이 서기직에 해당하는 핵심소조장과 부서기직에 해당하는 부조장직의 다수를 점하게 된다.

1973년 당 위원회가 복구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문혁 이전의 민족구성을 보이게 되었다. 어룬춘족이 당 위원회 서기를 맡게 된 것은 1980년에 이르러서이다. 그러나 어룬춘자치기의 전기간에 걸쳐 당 위원회의 핵심적 지위인 조직부장은 한족과 몽고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당의 지도부가 모두 한족으로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왜 문혁이 내몽고나 어룬춘자치기에서 ‘민족탄압대혁명’으로 인식되었는지 그

〈표 3〉 1959~1988년 어룬춘자치기 공산당 지도부의 구성

직 무	성 명	성 별	민 족	재 직 기 간
제1서기	賀其爾圖	남	어원커	1959.11-1961. 9
서기	雷占魁	남	한	1959.11-1961. 9
	莫日根達賚	남	어원커	1959.11-1961. 9
제1서기	賀其爾圖	남	어원커	1961. 9-1963. 8
서기	雷占魁	남	한	1961. 9-1963. 8
	莫日根達賚	남	어원커	1961. 9-1963. 8
	沙革	남	다우얼	1961.10-1963. 8
서기	賀其爾圖	남	어원커	1963. 8-1964. 6
부서기	沙革	남	다우얼	1963. 8-1966. 3
	雷占魁	남	한	1963. 8-1966. 3
	莫日根達賚	남	어원커	1963. 8-1966. 3
서기	沙革	남	다우얼	1966. 3-1966. 5
부서기	莫日根達賚	남	어원커	1966. 3-1966. 5
	耐熱爾圖	남	어룬춘	1966. 3-1966. 5
서기	沙革	남	다우얼	1966. 5-1967.12
부서기	莫日根達賚	남	어원커	1966. 5-1967.12
	虞尚義	남	한	1966.10-1967. 7
	李虎勝	남	한	1966.10-1967. 5
	張學仁	남	한	1966.10-1967. 6
핵심소조장	翟煥臣	남	한	1968.10-1969. 8
	王善擇	남	한	1969.11-1972. 9
	吳守貴	남	어원커	1972. 9-1973. 5
부조장	李顯林	남	한	1968.10-1973. 5
	王福堂	남	한	1970. 8-1972.11
	陸德環	남	한	1970. 8-1971.12
	陶雨亭	남	다우얼	1970. 8-1970. 3
	吳守貴	남	어원커	1971.12-1972. 9
	沙革	남	다우얼	1972. 5-1973. 5
서기	沙革	남	다우얼	1973. 5-1976.10
부서기	吳守貴	남	어원커	1973. 5-1976.10
	莫日根達賚	남	어원커	1973. 5-1976.10
	趙成珍	남	한	1973. 5-1974.10
	耐熱爾圖	남	어룬춘	1973. 5-1974.10
	李英權	남	한	1976. 4-1976.10

자료출처 : 中共鄂旗委組織部, 旗史志辦, 旗檔案局 合編(연도미상), 鄂倫春自治旗史志編纂委員會編(1991).

한 양태를 발견할 수 있다. 그에 더하여, 어룬춘자치기에 들어와 있던 정기합일 체제의 임업국들과 농장국은 자체적으로 당 조직을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 전체적으로 보아 한족이 당위의 거의 모든 부분을 장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기합일체제 계통에 있는 단위들은 자체적인 당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치기에서 또 다른 비지적(飛地的)인 “한족의 자치구역”을 갖고 있는 것과 같았다.

정부조직 구성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나타났다. 문혁 기간인 1967년 12월부터 1972년 7월까지 혁명위원회(革命委員會)²³⁾는 한족이 담당하였다. 이 시기는 군대가 진주하여 ‘혁명’을 지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표가 이를 겸임하였다. 이 체제는 1975년 7월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표 4>).

문혁 시기에 한족이 요직을 차지한 것은 부기장(부주임)의 구성에서도 나타난다. 혁명위원회 시기(1967~1981년) 전체에 걸쳐 부기장을 역임한 사람

<표 4> 1967~1990년 어른춘자치기 인민정부(혁명위원회) 대표의 구성

직무	성명	성별	민족	임기	비고
인민정부 (혁명위원회) 주임	翟煥臣	남	한	1967.12-1969.11	군대표, 핵심소조장 겸
	王善擇	남	한	1969.11-1972. 7	핵심소조장 겸
	吳守貴	남	어원커	1971.12-1975. 7	제1주임, 군대표, 핵심소조장겸
	沙革	남	다우얼	1975. 7-1978. 9	당위 서기 겸

* '주임'은 혁명위원회 시기의 자치기의 수반, '기장'은 인민정부 시기 자치기 수반을 지칭함(자료출처 : 中共鄂旗委組織部, 旗史志辦, 旗檔案局 台編(연도미상), 鄂倫春自治旗史志編纂委員會編(1991)).

의 총수는 28명이었는데, 그 중 한족이 11명, 어른춘족 7명, 다우얼족 6명, 어원커족 3명, 만족 1명이었다(中共鄂旗委組織部(연도미상)). 이는 1951년에서 1966년 기간에 기장, 부기장직을 역임한 사람 중에 한족이 1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1967년부터 1975년 사이에 7명이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의 어른춘자치기에서는 '자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1981년 인민정부 체제가 회복된 이후 1991년까지 17명의 부기장 중, 어른춘족은 6명, 한족 4명, 어원커족 3명, 다우얼족 3명, 몽고족 1명으로(中共鄂旗委組織部(연도미상)), 어른춘족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1951에서 1966년 사이의 상황에 비하면, 한족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1966년부터 1981년 사이에 이루어진 한족 인구의 유입과 정치적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정치적 격동과 인구의 이주는 이후에 있어서도 '민족자치'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 된다. 당초의 '민족자치'를 위협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소수민족지구에서 '분리독립'이나 '확실한 자치'에 대한 요구는 적었을 것이다. 중국에서 '민족분열주의자들'이라는 정치적 네임콜링("딱지붙이기")을 자주 듣게 되는데, 그것은 역으로, '민족자치를 위협하는 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약진운동과 더불어 시작되고 이 지역에 유입된 정기합일체제와 인민공사체제, 그리고 그러한 체제 기간의 일부를 차지하였던 문혁은 이 지역에서 어른춘인들의 주도권을 약화시키는 경향을 가져왔다. 다른 소수민족지구와 관련해서는 더 광범위한 분석이 요구되지만, 어른

춘자치기의 사정으로 보아 다른 소수민족지구들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1945년부터 1988년까지 내몽고자치구 당·정 지도부의 민족별 구성 상황 역시 문혁 시기에는 몽고족이 아닌 한족의 부상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郝維民(1991) 참조). 중국공산당 내몽고자치구 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구성에서 몽고족의 비율을 살펴보면, 1947-1949년 50%에서, 1952-1963년 33% 내외로, 1968-1976년에는 14%로 급감한다. 문혁의 종결 이후, 1976-1984년 26%, 1984-1989년 40%로 몽고족의 비율이 다시 증가하지만, 상임위원회 구성원들이 차지하는 중요 직책은 대부분 한족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것은 내몽고자치구 인민정부의 구성변화에서도 드러난다. 부주석 이상의 인원 중 몽고족의 비율은 1947~1950년의 100%에서, 1958~1967년 50%, 1967년~1971년에는 25%, 1971~1977년 8%로 급감하였다. 1977~1979년 15%, 1979~1988년 50%로 몽고족의 비율이 증가하였지만, 인민정부의 부주석 이하 하부직책 및 핵심직위는 한족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문혁 시기 '민족자치구역'의 '민족자치'라는 정치권력적인 측면과 '자치구역'이라는 공간적인 측면 모두에 있어서 본래의 이상이 실현되지 않았고, 오히려 역방향으로 사태가 진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내몽고자치구로의 환원과 대리관할체제의 문제

1979년 내몽고자치구가 1969년 이전의 영역을 회복하였을 때, 어른춘자치기 역시 내몽고자치구 관할 구역으로 편입되었다. 어른춘인들은 이것을 어른춘족의 민족자치구역으로서 어른춘자치기 영역의 회복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지나 형식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자치구역 회복이 형식적인 이유는 문혁 시기 내몽고자치구의 분할이라는 유산에서 비롯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약진운동과 문혁 시기에 이 지역에서 이루어진 외지인(특히 한족)의 대규모 이주는 이 지역에서 소수민족(특히 어른춘족) 인구비율의 급감을 가져왔고, 국영단위에 의한 대규모 자원개발은 지역과 부문(곧 지방부문과 정기합일 부문)이 혼합된 중국 특유의 소유제로 인하여 일종의 이중적인 관리구조를 낳았다.

1979년 7월 중공 중앙의 결정에 의하여 내몽고자치구가 문혁 이전의 행정구역의 회복하면서, 어른춘인들의 어른춘자치기 영역 회복 노력이 시작되었다. 내몽고자치구 영역의 회복 당시부터 1980년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어른춘자치기의 자거다치구(加格達奇區)와 송링구(松嶺區) 및 따양수 농장국(大楊樹農場局) 지역은 헤이룽장성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위와 헤이룽장성에 호구가 등재된 사람들에게 의해 일종의 '불법적인 점거'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는 문혁이 실질적으로 종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혁 과정 중에 잃어버린 '공간적 자기주장(空間的 自己主張)'의 강도가 어느 때보다도 거세게 일어났다. 이것은 어른춘족 자체에 의해서 추진되었다기보다는 내몽고자치구의 영역 확인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어른춘자치기 남부의 농장지대는 원래 내몽고자치구 후룬베이얼맹에 의해 개간이 시작되었던 것을 문혁 와중에 헤이룽장성이 반강제적으로 점유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몽고 동북부에서 아롱기(阿榮旗)와 모린다와 다우얼족자치기(莫力達瓦達斡爾族自治旗) 및 어른춘자치기 만큼 농사에 이로운 조건을 갖춘 지역을 찾기는 어렵다. 특히 식량 자급 조건을 갖추지 못한 내몽고자치구는 이 지역의 실질적인 관할권 회복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헤이룽장성으로는 따싱안링지구의 거점인 자거다치구가 없는 따싱안링개발을 생각할 수 없었고, 자신들의 자금과 노동을 투자하여 일구어낸 대규모 농장들에 대한 관할권을 이익도 모두 환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놓는다는 것은 무리였다.

내몽고자치구와 헤이룽장성 사이의 이러한 줄다리기 속에서, 송링구의 남부에 위치한 꾸리향(古里

鄉)에 어른춘족의 집거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송링구를 어른춘자치구의 관할에 두고자 하는 노력들이 어른춘인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꾸리향의 어른춘인들은 본래 헤이룽장성의 헤이허(黑河: 아이후이) 부근에 살던 사람들로서 1958년 어른춘족 정착시기에 이동해 온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본래 헤이룽장성 사람이기 때문에 송링구는 헤이룽장성에 귀속될 수도 있다는 헤이룽장성측의 주장이 있었다.

여기서 꾸리향의 어른춘인들은 하나의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었다. 자신들의 고향이 헤이룽장성이지만, 민족은 어른춘족이고, 자신들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은 이전의 어른춘자치기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들에게 이러한 공간적 구분은 무의미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본래 "헤이룽장성 사람", "내몽고 사람"이 아니라, 하천유역의 명칭을 따른 "○○첸"만이 의미를 지닌 것이었기 때문이다(李康源, 2000, 79-88). 남들이 그어 놓은 선을 따라 자신의 소속이 바뀌어야 하고, 또 그것이 내몽고자치구와 헤이룽장성 사이의 미묘한 갈등관계의 중간에 놓여 있다는 것을 그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다.

문혁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러한 갈등 상황은 어른춘자치기에서 적어도 두 가지의 효과를 나타냈다. 하나는 "내몽고 어른춘자치기(內蒙古鄂倫春自治旗)"라는 자치구의 정체성의 재편이고, 다른 하나는 꾸리향의 어른춘인들이 어른춘자치기 내의 다른 어른춘인들로부터 "헤이룽장성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일종의 따돌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자에 관해서는 어른춘자치기의 공식문건들에서도 확인된다. 1980년 이전에 간행된 문건들은 모두 "어른춘자치기(鄂倫春自治旗)"라는 표제를 달고 있지만, 이후의 문건들은 모두 "내몽고 어른춘자치기(內蒙古鄂倫春自治旗)"라고 표제를 달면서, "내몽고"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른춘인들은 자신들이 몽고족과 같은 목민(牧民)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대부분이 '초원민가(草原民歌)'이다. 이러한 현상은 문혁 종결 이후에 강화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자치구역이라는 공간적 자기주장에 심각한 타격을 입

은 바 있는 내몽고자치구 지도부가 그 영역을 확고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열망을 담고 있다.

후자에 관련해서는 꾸리향 어른춘인들이 상당히 “애매한 행동”을 하였거나, 내몽고자치구와 어른춘자치기의 지도부에게 일종의 혼선을 줄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1980년의 시점에서 꾸리향의 어른춘인들이 내몽고에 귀속되어 유리한 점은 별로 없었다고 한다. 우선 1940년대 말에서 1950년대 초 자치기 성립 시기에 내몽고지도부의 이름으로 진행된 민족자위단에 대한 토벌작전 때문에 이들의 내몽고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으며, 다음으로 꾸리향의 위치가 어른춘자치기의 다른 지역에 비해 날씨가 온난하여 농경에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꾸리향의 어른춘인들 대다수는 “헤이룽장성으로 편입되어도 좋다”는 식의 생각을 하였다. 이것은 내몽고자치구와 어른춘자치기의 지도부에게 환영 받을 만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부터 꾸리향의 어른춘인들은 사적인 담론들에서 어른춘자치기의 다른 어른춘집거지 사람들과 구분되는 “헤이룽장성 어른춘”이 되었다.

1999년 현재 어른춘인들의 수가 7천여 명에 불과하다고 하지만²⁴⁾, 이들은 “내몽고 어른춘”과 “헤이룽장 어른춘”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이들이 이렇게 서로를 구분하기 시작한 것도 1980년대 초반부터였다는 증언에 비추어보건대, 당시의 영역 조정이 어른춘족 사회 내부에 또 하나의 구분의 선을 획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80년, 문혁 시기 자거다치진을 중심으로 어른춘자치기의 동북부 삼림을 개간해온 헤이룽장성과 내몽고자치구 및 어른춘자치기 사이에 관할권 분쟁이 “공식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1979년 가을과 겨울 헤이룽장성 따싱안링지구와 어른춘자치기의 세수권(稅收權) 분쟁에서 비롯되었다. 어른춘자치기는 내몽고자치구정부의 지도를 받으면서 자거다치진과 쑹링구 및 따양수지역에 대한 세수권을 주장하였고, 헤이룽장성의 지도를 받는 따싱안링지구는 자신들의 투자지분과 인구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세수권을 방어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내몽고자치구와 헤이룽장성 사이의 분쟁으로까지 이어져, 중공 중앙이 경계와 관할권을 조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1980년 당시 중공 중앙

은 자거다치진과 쑹링구는 헤이룽장성의 지도를 받되, 속지권(屬地權)은 불변하여 원래대로 내몽고자치구와 어른춘자치기에 속하며, 세수권 역시 어른춘자치기에 속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헤이룽장성은 1980년부터 매년 700만 위엔을 어른춘자치기에 교부하며, 그 액수는 5년에 1차례 협상을 통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결론을 보았다. 이후 1988년 교부금이 1000만 위엔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어른춘인들의 영역에 대한 확인은 일단 성공한 듯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춘자치기의 1/3에 가까운 면적이 사실상 어른춘자치기의 관할을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1979년 이후 어른춘자치기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 어른춘족의 약진을 상쇄하고도 남는 효과를 지녔다. 어른춘인들이 자치기 정부의 수반 직위를 차지하였다고 해서, 그들이 자치구 전역에 대해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거다치진이나 쑹링구와 같이, 헤이룽장성에 관할권을 위임한 면적이 자치기의 1/3에 달하며, 임업국과 농장국 등이 완전하게 자치기의 관할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행정조직과 당조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²⁵⁾

자치기 내의 핵심적인 임업구나 농장지대는 자치기의 관할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에게 세금 몇 푼을 던져줄 뿐, 가장 복잡한 계획생육 문제, 자류인원문제, 도로의 건설, 교육문제 등등은 자치기 정부가 관할하게 된 것이다. 우리 어른춘들이 정부의 요직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어른춘자치기 내의 자산이나 인적자원에 대해 관할권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농장국 국장은 기장과 동급이다. 쑹링구의 장도 기장과 동급이다. 임업국도 마찬가지이다. 처음에 대부분 국영부문이 자치하여 지금까지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 기본적으로 변화된 게 없다. 애초의 어른춘자치기에서 거의 반이 남의 관할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남, 어른춘족, 33세, 인민정부 관리)

원래 정기합일 체제로 성립되었던 자거다치구와 쑹링구 및 따양수 농장국 등은 1980년대 중반에 들어 정기합일 체제를 청산하여, 행정과 기업이 분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기합일 체제의 청산에도 불구하고, 관할권은 여전히 어른춘자치기에 귀



그림 4. 현재 어룬춘자치기의 관할 구역 편성

속되지 않고 있다. '정기합일(政企合一)'에서 '정(政)'은 헤이룽장성이 '기(企)'는 중앙정부 임업부가 각각 맡고 있다.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룬춘자치기”의 인민이 아니라 “헤이룽장성”의 인민이다. 더불어 이들의 호구는 “농업”인 경우보다는 “비농업인구”가 대부분이며, 주로 향의 중심지나 진 혹은 소도시적 면모가 보이는 지역에 거주한다. 따라서 이들이 자신들의 거주지역을 지나가는 내몽고 번호판을 단 차량이 경적을 심하게 울리면, “어리석은 놈들이...”라고 하고²⁶⁾, 헤이룽장성 번호판을 단 차량이 내몽고자치구 어룬춘자치기가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지역에서 탈출을 피우면, “도둑놈들이...”라고 한다.²⁷⁾ 그렇다고 이들이 항시적으로 이러한 적대감 속에서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따양수진(大楊樹鎮)이나 자거다치구의 일반적 인민들(주로 한족)은 내몽고자치구 어룬춘자치기가 관할하는 어룬춘족의 거주지나 어룬춘족의 농장 혹은 어룬춘자

치기의 다른 지역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어룬춘자치기 정부는 현재 이러한 대리관할지역을 환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환수노력은 자치기장 등 어룬춘족들에게는 '자존심'의 문제이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시장화 시기 이후 자치기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이들 지역을 환수하는 것이 유리하고, 또 절박하게 되었다는 이유가 있다. 예로, 어룬춘자치기 정부는 1990년대 초반 지역특화산업의 하나로 생수공장을 따양수진 근처에 건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 지역이 헤이룽장성의 대리관할 지역인 관계로 헤이룽장성과 농장국의 견제를 받았다. 헤이룽장성이나 농장국이 그 생수공장을 개발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자치기 정부는 지상권만 그들에게 있지 토지와 지하에 관한 권한은 자신들에게 있다면서 견제를 방어하였다. 지역의 경제개발에 있어서도 이러한 불편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룬춘자치기 정부와 어룬춘인들은

대리관할 체제를 청산하고, 영역을 환수하고자 노력한다. 어른춘자치구가 이러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전에는 보기어려웠던 것이고, 시장화 이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 중요하다. 시장화 시기는 서서히 지역발전과 같은 사안이 민족적인 사안보다 중요해지는 시기이다. 그러나 시장화 시기에도 문혁과 그로 인한 공간적 재편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결론 : 소수민족지구에서 문화대혁명의 정치지리학적 의미

내몽고자치구와 어른춘자치구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문혁은 공간적인 요소를 강하게 내포한 정치적 운동이었으며, 그 결과로서 특수한 공간적인 현상이 나타났다는 비교적 자명한 사실을 넘어, 당초 그러한 결과를 목표로 하고 추진한 정치적 운동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즉 소수민족자치와 민족자치지구의 소멸을 당초 의도의 일부로서 포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그것이다. 소수민족지구에 대한 대약진 운동 시기의 광범한 이주, 문혁 시기의 확고한 지배체제의 성립은 현재까지도 중국의 중앙이 소수민족지구를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중국에서 '민족자치(民族自治)'와 '자치공간(自治空間)'을 둘러싼 불만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보다 일반적인 견해를 도출할 수 있다. 그것은 중국 지도부에게 변강 혹은 민족자치지방은 '지역(地域)' 내지 '공간(空間)'으로서 중요한 것이지, '민족(民族)'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민족'을 이용하여 '공간'을 조작하거나, '공간'을 이용하여 '민족'을 조작하는 경향이 있다.²⁶⁾ 이러한 관점에 선다면, 문혁은 적어도 민족자치구역에 있어서는 권력 그 자체를 위한 '암투'였다기보다는 정치지리학적인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민족'을 '계급'으로 해체하고, '자치구역'이라는 '공간'을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지방'으로 분해시키면서, '인민'과 '국토'로 통합시키는 과정의 일부였다고 볼 수 있다. 좀더 이론적인 용어로 표현하여, 사회적 범주(social category)와 공간적 범주(spatial category)의 재편을 통하여 권력의 통합

을 도모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지도부가 이러한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과 문혁이 이러한 의도를 극명하게 드러낸 정치적 운동이었다는 점이 소수민족들이 항상 그러한 의도 속에서 일방적으로 규정받으며 파편화된 채로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러한 설명을 전적으로 따른다면, 우리는 "왜 아직도 민족분리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²⁹⁾ "억압받기 때문에 저항한다"는 설명은 부분적인 것이다. 저항의 힘은 무엇을 근거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는 연구의 다음 단계에서 소수민족들 그러한 의도와 정치적 운동에 의해 틀 지워진 한계를 돌파하고자 스스로의 공간적인 전략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인간집단으로서 소수민족들 역시 자신들의 '민족'과 '영역'을 전략적 자원으로 이용하여 자신들 나름의 지정학적 전략을 구축하고 있고, 구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註

- 1) 문혁은 공식적으로는 1966년 5월부터 1969년 4월까지 약 3년 간 진행된 것이었지만, '四人幫'이 실각하는 1976년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2) 이러한 점은 중국사에 대한 서방세계의 권위적인 연구서로 꼽히는 캠브리지 중국사 시리즈(Twitchet and Fairbank, 1987)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 3) 내몽고자치구는 중국에서 최초로 성립된(1947년) 민족자치지구이며, 어른춘자치구(鄂倫春自治旗)는 내몽고자치구 후룬베이얼행 소속으로서 어른춘족(鄂倫春族)의 민족자치지방(현급)이다.
- 4) 이 글에서는 지면 관계상 문혁의 전반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문혁의 전반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王年一(1996)을 참조.
- 5) "파헤치고 숙정하자(挖肅)"는 뜻이다. 1968년 2월 마오쩌둥은 Kang성(康生)과 Deng하이청(鄧海淸)을 시켜 '내몽고인민혁명당'을 파헤치도록 한다. 당시 내몽고인민혁명당이 실재하였는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몽고족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내몽고인민혁명당은 1920년대에 내몽고의 독립을 위해 결성된 조직으로서, 1940년대 말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신중국 성립 이후, 특히 대약진운동을 이후 목구에서 사회주의적 개혁이 가속화되자 목민들의 불만은 증가하고 있었다. 마오쩌둥은 그러한 불만을 결집시킬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운동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 6) 알숙운동이 우란푸를 중심으로 하는 몽고족 지도부를 향한 것이었다면, '신내인당원안'은 우란푸의 실각 이후 내몽고민족주의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의 의미를 지닌다. 1969년 1월 덩하이칭이 주도한 이 운동으로 내몽고 하부 및 기층조직의 민족 지식인들까지 타격을 입게 되었다.
- 7) "계급을 재획분하고, 정비하여 타도의 대상을 명확히 하자"는 운동으로서, 앞의 두 가지 운동과 달리 일반 인민들에게도 광범위한 영향을 주었다.
- 8) 이와 관련된 각종 통계수치는 內蒙古計委國土整治辦公室, 內蒙古自治區測繪局編(1987)을 참조.
- 9) 필자가 조사한 바 있는 내몽고자치구 후룬베이얼맹(內蒙古自治區 呼倫貝爾盟)의 서부지역 목구에서는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목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었다. 당시의 후룬베이얼맹 초원지역에서의 토지기간 면적에 관해서는 李康源(2000, 147)을 참조.
- 10) 이러한 점은 다른 소수민족지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71년 녁사후이족자치구에서는 문혁의 과격성이 민족감정에 불을 질러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1972년에 이르러 경우 진정되었다. 1972년 총리 저우언라이는 공안부문과 농림부문을 중심으로 소조를 편성하여, 내몽고, 신장, 티벳, 윈난 등지에 조사조를 파견하였다. 이는 당시 소수민족지구의 동향이 심상치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 11) 중국 공산당이 중국 민족정책의 우월성으로 거론하는 첫번째 논리가 민족구역자치제도(民族區域自治制度)의 실행이다. 그러나 문혁 이전에 이러한 논리가 해당지역의 소수민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접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딜(Deal, 1971, 143-145)은 중원으로부터 변강으로의 인구유입과 더불어 영역의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칭하이(靑海), 신장(新疆), 내몽고(內蒙古), 윈난(雲南) 등의 민족지구에서는 한족의 유입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자체의 이동과 영역의 조정이 실행되었음을 증명하였다. 그는 이러한 영역의 조정이 각 행정단위 수준의 자치에 있어서 명목상으로는나마 남아 있던 민족집단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기제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코너(Connor, 1984, 324) 역시 티벳(西藏)의 예를 들어 자치구역이라는 체계가 민족을 응집시키기보다는 파편화하는 데 이용되었다고 주장한다.
- 12) 토마스 헤베러는 서로 다른 정치적 운동들(예로, 1950년대에 지방주의에 반대하는 운동,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은 민족집단의 기억에서 간단히 지울 수 없는 국가적 탄압의 절정이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문화혁명이 중국 거주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서, 한족에게 이 운동은 그들 자신의 정치적 지도의 책임 아래 행해진 운동이었으나, 소수민족에게는 한족과 그들의 정당이 책임진 운동이었다고 하였다. "한족에게 문화혁명은 정치투쟁이었지만, 소수민족에게는 민족적인 갈등이었다. 모든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속성들이 적대적이고 반동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이 시기의 상처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화혁명은 정신적이고 물리적인 탄압이기도 했지만, 기억 말살이기도 했다."(Heberer, 1997, 141-142).
- 13) 중국어에서 '문화(文化)'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지만, 일반적인 언설에서는 학력의 의미가 강하다.
- 14) 정치와 기업이 하나의 조직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지칭한다. 따라서 당과 정부 부문이 기업의 생산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존재하게 된다. 이와 달리 인민공사의 경우는 '정사합일(政社合一)', 즉 정치와 사회가 하나의 조직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정기합일 체제는 대부분의 국영기업에서 채택된 조직형식이다.
- 15) '우리령'은 어문춘어로 '자손들'이라는 뜻으로서, 그들의 일상적인 사회조직을 말한다. 동일한 부계혈통에서 비롯된 사람들의 집합체이며, 그 내부는 일부일처제의 '주'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노동과 평균분배가 이 사회조직의 기본적인 원칙이었다(자세한 것은 李康源(2000, 84-87)을 참조). 어문춘인들은 자체 문자가 없으므로, 발음을 한자로 전사하여 '烏力楞'이라고 표기한다.
- 16) "영화 속에서 마오쩌둥 주석이 손을 흔드는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마오쩌둥 주석은 참 좋은 사람이다. 잘 생겼고. 그 때는 군인들이 밤에 인민공사 관공실 앞의 나무에 커다란 장막을 치고 영화를 보 여주었다. 영화를 보고 집에 가는 데 날이 어두웠다. 손전등을 몇 개 나누어주었다. 나는 그때 그것을 사용할 줄 몰랐다. 군인들이 들고 다니는 것을 보니 불이 나오는데, 내 것은 안나왔다. 나는 그것을 품에 품어보기도 하고, 물에도 넣어보고, 땅에 던져보기도 하고……, 애가 타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다가와 불 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여, 59세, 어문춘족, 푸리향 거주)
- 17) 이들의 약전(略傳)에 대해서는 鄂倫春自治旗史志編纂委員會(1991)을 참조.
- 18) 이러한 점은 토마스 헤베러(Thomas Heberer, 1997, 152)에 의해서도 지적되었다. 그는 1980년부터 1986년 3월까지 어문춘자치기 내에서 발생한 112건의 돌연사 중에서 90건이 알코올과 관련된 것이며, 1990년대 초 헤이룽장성 어문춘족 인구의 45%가 질병에 걸려 있었고, 3.3%가 결핵에 걸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였고, 당시 헤이룽장성 어문춘거주 지역의 한족을 포함한 전체인구의 결핵 감염자는 0.6%였다. 헤베러는 이에 대해, 강제정착, 교차사촌혼의 금지, 사만 활동의 금지, 전통사회조직의 파괴 등으로 인한 "고향상실증(deracination)"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만 설명한 것일 뿐이다. 결핵에 걸리는 것은 고향상실증과 별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결핵은 외지인에 의해 유입된 질병이다.
- 19) '포괄적인 재평가 및 권리의 회복'을 말한다.
- 20) 당시 순수하게 문혁으로 인하여 사망한 인원에 대한 통계는 없다. 그러나 1965~1975년 사이의 사망자수는 문혁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1965년 470명, 1966년 696명, 1967년 345명, 1968년 512명, 1969년 595명이던 사망자 수가 1970년에는 6,010명으로 월등히 높다. 당시 어문춘자치기에 홍수 등의 자연재해나 전염병이 있었다는 기

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망자수는 '문혁'으로 인한 사망자수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 통계 수치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내몽고의 문혁이 중국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격렬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1966년 이래 통계 부문의 업무가 일관성을 상실했던 점을 고려할 때, 1970년의 통계는 1966년부터 1970년에 이르는 '불명확한 사인'을 사후적으로 일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 수가 6010명일 때만이 당시 어룬춘자치구의 전반적인 인구통계와 정합성을 갖는다. 물론 이 사망자 수에는 어룬춘족만이 아닌 다른 민족들도 포함된 것이다.

- 21) 어룬춘인들이 거주하였던 전통가옥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자작나무를 베어내어 기둥으로 삼아 원추형으로 경사를 유지하여 세우고, 그 위에 자작나무 껍질을 덮어 엮은 것이다. 현재는 가옥개량으로 인하여 거의 사라졌으나, 일부 지역에 여전히 존재한다. "샤런주"라고도 불리며, 어원커족어(鄂溫克族語)로는 "첼러즈"라고도 불린다.
- 22) 한글로 "나건"이라고 전사할 수 있는 이 말은 원래 만주족이 한족을 부를 때 쓰던 말에서 비롯되었다. 러시아의 인류학자 시로코고로프(Shirokogoroff, 1924, 23)는 한자로 "依爾根(열건)"으로 전사되고, 자신의 표기로는 "jergen"으로 전사되는 이 말이 원래 "비천하고 옹졸한 사람"이라는 뜻의 만주어로서, 만주족이 한족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라 하였다. 어룬춘인들도 거의 유사하게 한족 또는 "남쪽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며, "땅 파먹고 사는 옹졸한 인간들, 속 좁은 놈, 머리 잘 돌아가는 놈"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 23) 1951년 성립된 어룬춘기 인민정부는 1952년 어룬춘자치기 인민정부로 개칭되고, 1955년에는 헌법 개정으로 인하여 어룬춘자치기 인민위원회로 다시 개칭되었다. 문혁 시기인 1967년에는 어룬춘자치기 혁명위원회가 구성되어 혁명위원회 체제를 1981년까지 유지하였다가 이후 인민정부의 명칭을 되찾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혁명위원회 체제는 1973년 당 위원회의 조직이 회복됨에 따라, 그 이후로는 명칭만 유지되었을 뿐 사실상 인민정부적 기능을 확보하고 있었다.
- 24) 2000년 중국의 인구 센서스 결과에서 어룬춘족의 인구는 2001년 10월 현재까지 공표되지 않고 있다.
- 25) 실제로 헤이룽장성 관할의 임업지역인 쑹링구의 경우 1964년부터 현재까지 당위원회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 소수민족은 단 한 명도 찾아 볼 수 없다(松嶺區志編纂委員會, 1995, 433-434 참조).
- 26) 내몽고자치구에 등재된 차량의 번호판은 "蒙 A 123 456"라는 형식의 번호판을 달고 있다. '蒙'은 "무지몽매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 27) 헤이룽장성의 차량 번호판은 "黑 A 123456"이라는 형식이다. '黑'은 "검다, 음흉하다, 도둑"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다.
- 28) 이에 대해서는 李康源(2001, 299-328)을 참조.
- 29)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서는 스코트(Scott, 1990)을 참조.

文獻

- 李康源, 1999, '邊疆'과 '民族'의 생산: 중국 따싱안 링 산지 어룬춘-다민족지구 현지조사 보고, 1999년도 한국지리학회 심포지엄 및 학술발표회 논문집, 대한지리학회.
- 李康源, 2000, 중국변강에서 민족과 공간의 사회적 구성: 어룬춘족 사회의 다민족화와 정체성의 정치, 지리학논총 별호 37,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地理學科.
- 國家民族事務委員會經濟司 等, 1998, 中國民族統計年鑑, 民族出版社, 北京.
- 金春明, 席宣, 1995, 文化大革命簡史(이정남 외 역, 2000, 문화대혁명사, 나무와 숲, 서울).
- 內蒙古計劃委員會國土整治辦公室 等, 1987, 內蒙古國土資源地圖集, 內蒙古人民出版社, 呼和浩特.
- 當代中國的民族工作編輯部, 1990, 當代中國民族工作大事記: 1949-1988, 民族出版社, 北京.
- 當代中國叢書編輯部, 1992, 當代中國的內蒙古, 當代中國出版社, 北京.
- 圖們, 祝東力, 1995, 康生與 '內人黨'冤案, 中共中央黨校出版社, 北京.
- 民族問題研究會, 1993, 內蒙古民族問題, 民族出版社, 北京.
- 寶音 等 編著, 1989, 內蒙古自治區地理, 內蒙古人民出版社, 呼和浩特.
- 松嶺區志編纂委員會, 1995, 松嶺區志, 方志出版社, 北京.
- 鄂倫春自治旗史志編纂委員會, 1991, 鄂倫春自治旗志, 內蒙古人民出版社, 呼和浩特.
- 鄂倫春自治旗革命委員會(人民委員會)統計局, 鄂倫春自治旗國民經濟統計資料 1953-1998, 各年度.
- 王年一, 1996, 大動亂的年代, 河南人民出版社, 鄭州.
- 牛平漢 主編, 1990, 清代政區沿革綜表, 中國地圖出版社, 北京.
- 丁文江, 翁文灝, 曾世英, 1936, 中國分省新圖, 上海申報館, 上海.
- 中共鄂旗委組織部, 旗史志辦, 旗檔案局 合編, 연도 미상, 中共內蒙古自治區鄂倫春自治旗組織史資料, 中共鄂旗委員會.
- 中共中央統戰部, 1991, 民族問題文獻匯編: 1921.7-1949.9, 中共中央黨校出版社, 北京.

- 中華人民共和國民政部編, 1980, 中華人民共和國行政區域簡冊, 地圖出版社, 北京.
- 陳潮 編, 2000, 中國行政區劃沿革手冊, 中國地圖出版社, 北京.
- 郝維民, 1991, 內蒙古自治區史, 內蒙古大學出版社, 呼和浩特.
- 呼倫貝爾盟統計局, 1997, 發展中的呼倫貝爾, 呼倫貝爾盟, 海拉爾.
- 呼倫貝爾盟史志編纂委員會, 1999, 呼倫貝爾盟志(上, 中, 下), 內蒙古文化出版社, 海拉爾.
- Bernstein, T. P., 1977, *Up to the Mountains and Down to the Villages: The Transfer of Youth from Urban to Rural China*, Yale University Press.
- Chan, A., 1985, *Children of Mao: Personality Development and Political Activism in Red Guard Gener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Chan, A., Madson, R. and Unger, J., 1984, *Chen Village: The Recent History of a Peasant Community in Mao's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onnor, W., 1984, *The National Question in Marxist-Leninist Theory and Strateg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eal, D., 1971, *National Minority Policy in Southwest China, 1911~1965*,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 Dittmer, L., 1974, *Liu Shao-chi and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The Politics of Mas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eberer, T., 1997, "Ethnic Revival, Ethnic Identity and Conflict in the Process of Social Change in China", (중국사회의 변화과정에서의 종족부활, 종족정체성 그리고 종족갈등), 비교문화연구, 제3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 Josep, W. A., Wong, C. P. W. and Zweig, D., 1991, *New Perspectives on the Cultural Revolution*, Havard University Press.
- Lee, H. Y., 1978, *The Politics of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A Case Stud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cott, J. C., 1990, *Domination and the Art of Resistance: Hidden Transcripts*, Yale University Press.
- Shirokogoroff, S. M., 1924, *Social Organization of the Manchus: A Study of the Manchu Clan Organization*, The Commercial Press(中文本: 高丙中 譯, 1997, 滿族的社會組織-滿族氏族組織研究, 商務印書館).
- Twitchet, D. and Fairbank, J. K., 1987, *The People's Republic, Part 2: Revolutions within the Chinese Revolution: 1966~1982*, Cambridge History of Ch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weig, D., 1989, *Argarian Radicalism in China: 1968~1981*, Havard University Press.

(2001년 12월 3일 접수)